SPORTS

‘사령탑 공백’ 광주FC, 승점 사냥 성공할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백기태호 U-17 축구대표팀
23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도전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남자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23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U-17 축구대표팀은 3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타이프에서 열리는 U-17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백기태호는 지난해 10월 열린 아시안컵 예선 C조에서 3승 1무로 1위에 올라 본선에 진출했다.

1986년 카타르 대회, 2002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한국은 2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린다.

한국은 2008년, 2014년, 2023년 준우승만 세 차례 했다. U-17 아시안컵 최다 우승팀은 일본(4회)이다.

4개 팀씩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C조에 편성됐다.

객관적 전력상 한국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U-17 아시안컵은 오는 11월 3~27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U-17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예선전을 겸한다.

올해부터 U-17 월드컵 출전 국가가 24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면서,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기만 하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어린 선수들에게 아시안컵과 월드컵 등 주요 연령별 국제대회는 두각을 나타내 전 세계의 눈도장을 찍을 기회다. 연합뉴스

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제주와 격돌
‘퇴장’ 이정효 감독, 출장 정지…중위권 도약 갈림길

사령탑 공백 위기를 맞은 프로축구 광주FC가 승점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

광주FC는 오는 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7라운드 제주와의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패배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성적은 1승 4무 1패 승점 7로 리그 8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을 병행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광주는 시즌 초부터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를 겪었다. 그럼에도 매 경기 광주 특유의 전술 색깔과 철학을 잃지 않고 있다. 선발로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로 나서는 이들이 모두 제 몫을 다하며 원팀으로 똘똘 뭉친 모습이다.

이정효 감독은 상대 스쿼드, 선수 컨디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 경기 다른 선발 라인업을 꺼내고 있다.

지난 29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선 직전 포항스틸러스전과 비교해 선발 4명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이민기, 이강현, 오후성, 박인혁을 빼고 브루노, 주세종, 김한길, 문민서를 선발로 내세우는 과감한 선택을 통해 상대 허를 찔렀다.

광주는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대전과의 일전에도 선수단의 체력 안배, 고른 컨디션 관리 등과 더불어 결과도 챙겼다. 비록 후반 동점골을 허용하며 1-1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으나 대전에 시즌 첫 무승부를 안겼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최전방을 활발히 누비며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던 헤이스가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에이스 아사니는 후반 교체로 나서며 출전 시간을 관리받았다.

다만 이 경기에서 이정효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이번 제주전에서는 출장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헤이스, 아사니 듀오를 앞세워 제주를 잡고 홈 팬들에게 승점 3점을 선물하겠단 각오다.

광주는 이날 경기장에 방문하는 팬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식목일 다음 날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 경기 전 ‘아카시아 나무 묘목 홍보부스’를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아카시아 나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팬들은 ACLE 8강 진출에 성공한 선수단에 직접 전달될 ‘응원 메시지로 벚꽃나무 꾸미기’ 참가를 통해 따스한 봄의 추억을 함께할 수 있다.

하프타임에는 전광판 이벤트로 ‘봄격적으로 찾아봐~’를 운영해 광주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 등의 경품을 증정하며, 네이버 스포츠 직관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광주FC 2025시즌 선수단 친필사인 유니폼을 선물할 계획이다.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빈 씨는 선착순 500명에게 응원용 메가폰을 증정할 예정이며 ‘조빈을 찾아라’ 가면 응원 셀카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장 내에서 조빈을 발견 후 직접 꾸민 가면 응원도구를 착용한 상태로 ‘가면을 쓴 조빈’과 함께 셀카를 촬영,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인증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 2잔+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선수단 사인회, 벚꽃 나무 조형물을 활용한 대형 유니폼 에어벌룬 포토존 및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 등이 열린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화성특례시장배 ‘금빛 탄환’

올해 첫 대회 단체전서 ‘3관왕’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최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겸 2026 상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단체전 3관왕 포함 금 3, 은 1, 동 3개를 획득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이 올해 첫 국내대회인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겸 전국장애인사격대회’에서 금빛 탄환을 쏘아 올렸다.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김근수 감독·박동안·임주현·박승우)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겸 2026 상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단체전 3관왕(R4-공기소총10m 입사, R5-공기소총10m 복사, R9-화약소총 50m 복사) 포함 금 3, 은 1, 동 3개를 획득했다.

먼저 1일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는 임주현(633.7점), 박동안(630.9점), 박승우(629.8점)가 1894.4점을 합작해 경기도(1889.4점), 대전(1879.3점), 인천(1879.3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진 R4 개인전에서는 임주현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2일 공기소총 복사(R5) 단체전에서는 박승우(637.9점), 임주현(634.7점), 박동안(634.7점)이 합계 1907.3점으로 경기도(1900.9점), 대전(1899.3점), 인천(1886.3점)을 크게 앞서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R5 개인전에서는 임주현이 은메달, 박승우가 동메달을 들어 올렸다.

대회 마지막 날인 3일 화약소총 복사(R9) 단체전에서도 박승우(622.4점), 박동안(615.5점), 임주현(612.3점)이 합계 1850.2점으로 경기도(1846.7), 대전(1829.6)을 제치고 대회 단체전 3관왕을 완성했다. R9 개인전에서는 박승우가 동메달을 건져 올렸다.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지난해 단체전(R4, R5, R9)이 운영된 5개 대회(연맹회장기, 국가대표 선발전, 직지배, 화성시장배, 전국체전)서 금메달 15개 중 금 14·은 1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첫 대회서도 단체전 3관왕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장애인사격 간판 팀임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는 1902.2점으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기록한 바 있다.

김근수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은 “동계시즌 선수들과 함께 소통하며 훈련에 매진한 결과가 올해 첫 대회부터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박승우, 박동안, 임주현이 원팀 정신으로 전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2026 장애인사격 상시 국가대표는 이번 화성특례시장배를 포함한 7개 대회서 상위 6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서 종목별 1명씩 선발한다. 광주시청 박승우는 2024년 6개 대회 R9(화약소총 복사) 종목 합산 1위를 차지하며 2025년 상시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동 중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

‘아시아 돌풍’ 광주FC, K리그1 서울전 경기 조정

19일 오후 7시…“20일 사우디 출국으로 변경”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에 진출하면서 광주와 FC서울의 K리그1 9라운드 경기가 앞당겨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K리그1 9라운드 광주와 서울의 맞대결이 기존 20일 오후 2시에서 19일 오후 7시로 변경된다. 경기 장소는 기존과 동일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광주의 ACLE 8강 진출로 인해서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달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비셀 고베를 3-0으로 꺾고 2024-2025 ACLE 8강에 진출했다. 당초 지난달 5일 열린 16강 1차전에서 0-2로 패해 탈락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후반을 2-0으로 마쳤고, 연장전에서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의 결승골로 최종 승자가 됐다.

역대 시·도민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더욱이 올해 ACLE에 진출했던 울산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8강까지 진출하며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후 17일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진행된 ACLE 8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고, 사우디의 맹주 알힐랄과의 대진이 확정됐다. 그 결과 광주는 오는 25일 알힐랄과 맞붙는다. 경기 준비를 위해 광주 선수단은 20일 사우디로 출국할 예정이다.

광주가 알힐랄을 꺾게 된다면 알아흘리(사우디)-부리람유나이티드(태국) 경기의 승자와 4강전을 치른다.

한편 지난해 6월 AFC가 발표한 초대 ACLE 대회 상금 규모에 따르면 ACLE에 출전하는 모든 팀은 80만달러(약 11억6000만원)를 출전료 성격의 상금으로 받는다. 16강에 진출하면 20만달러(2억9000만원), 8강에 오르면 40만달러(5억800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남부대학교는 최근 남부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골프 프로 선수 양성과 건전한 골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아시아골프연맹과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장애인 선수단 장성서 감동과 추억 담아가길”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2차 대표자 회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4일 장성군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 등 약 90명이 참석해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장성군 체전 TF팀이 개·폐회식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과 종합안전 대책을 안내한다.

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종 참가 신청을 바탕으로 경기 대진 추첨을 진행하며 주요 공지 사항을 전달한다.

올해 대회는 전년 대비 선수단이 50명 증가한 가운데, 총 21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야외 개회식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군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서정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성에서 처음 열리는 장애인 체전에서 선수단과 가족들이 감동과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장성군의 따뜻한 환영과 열정적인 준비가 이번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장성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총 21개 종목에 약 1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남부대학교-(사)아시아골프연맹, 선수 양성 MOU

학부·대학원생 프로테스트 실기 시험 면제 등 혜택

남부대학교는 지난 2일 남부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골프 프로 선수 양성 및 건전한 골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아시아골프연맹과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준범 남부대 총장, 황민구 교무처장, 구민 학술원장, 김용호 (사)아시아골프연맹 회장, 이관호 전략기획본부장, 함태우 서울시광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남부대학교 학부, 대학원생들은 프로테스트 실기 시험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고, 골프선수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남부대는 복싱·사격·당구 등의 엘리트 선수 육성, 광산남부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 도모 등 체육 분야에서도 앞장서는 등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